

Banglatti

2014 MARCH



March Report

김진경
황하람
신지혜
오효정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NGLADESH



2014 MARCH

I. 일정 소개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NGLADESH



I. 일정 소개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2	3	4	5	6 다카도착 →사바르 (YMCA 트레이닝 센터)	7 · 오리엔테이션 · 방글라데시 YMCA 소개	8 · 방글라 공부
9 · 방글라 공부 · Jhon간사님 마을방문 · 사바르youth들과 만남&문화교류	10 · 방글라 공부 · 메모리얼파크 방문	11 · 방글라 공부 · 방글라데시 문화알기 · 사바르 뉴마켓	12 · 다카여행	13 · 사바르youth들의 방문 & 문화교류	14 비리시리로 이동 · 오리엔테이션 · 비리시리 Youth 포럼 문화프로그램 참여	15 · 자유시간 (마을과 친해지기)
16 · 현지교회 · 비리시리 YMCA 소개 · 자전거 연습	17 Father of the Nation Bangabundhu's Birthday	18 · 아침 경건회 · 방글라 공부 · 지역 학교 둘러보기	19 · 아침 경건회 · 방글라 공부 · 두르가푸르 시장 방문	20 · 아침 경건회 · 다하파라 대안학교	21 ·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 · 나눔활동	22 · 방글라 공부 · youth들과 가드닝
23 · 현지교회 · youth들과 화단 가꾸기	24 · 아침 경건회 · 다하파라 대안학교	25 · 아침 경건회 · youth들과 서로의 노래 배우기	26 Independence Day	27 · 아침 경건회 · 다하파라 대안학교	28 · 한국음식 요리 · 나눔활동	29 · Ymca건물 기본페인팅
30 · 현지교회 · Ymca건물 기본페인팅	31 · 다하파라 대안학교					

2014 MARCH

MARCH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LGADESH

2014 MARCH

I. 활동 정리



-사바르 YMCA 트레이닝센터
-다하파라
-비리시리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LGLADESH

사바르 YMCA 트레이닝 센터

낮선 다카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사바르 YMCA 트레이닝센터로 행했다. 사바르는 수도 다카와 차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대도시권 도시이고, 방글라데시 YMCA의 트레이닝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이 곳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방글라데시의 문화와 방글라데시 YMCA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방글라데시의 의복, 음식문화, 명절 등 생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 기대하곤 했다.



사바르 YMCA 트레이닝 센터

일주일 간 머물면서 우리는 낮선 방글라데시의 분위기가 궁금해 매일매일 외출일정을 가지고 싶다고 요청했다. 일정을 소화하면서 사바르의 로컬마켓에 둘러 이국적인 분위기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드넓은 메모리얼 파크(독립전쟁 추모공원)에 나가 바람을 쐬며 방글라데시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했다. 특히 메모리얼 파크에 갔던 날은 거의 처음 명승지에 들른 날이었는데, 외국인인 우리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MEMORIAL PARK

사바르 YMCA 트레이닝 센터

처음 맞은 일요일에는 사바르 현지 교회에 방문했다. 우리를 인솔해준 John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교회이기도 했는데, John이 사는 마을과 집을 방문하면서 현지 가정과 마을의 모습과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예배가 없는 오후시간이라 교회의 청년부와 만남을 가졌는데, 함께 노래를 부르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몇몇 CCM은 우리도 아는 것들이라 신기하기도 했고,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만난 우리 또래라서 더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다.

나중에 사바르 Youth들이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YMCA 트레이닝 센터에 방문하여 서로 한 곡씩 노래를 알려주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나라 youth들과 공유할 수 있는 노래가 생겨서 좋았다. 나중에 비리시리로 와서도 Youth들과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시간을 보냈다.



LOCAL CHURCH

사바르 YMCA 트레이닝 센터

비리시리로 오기 전 날, 다카에 방문해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쇼핑몰, 국립박물관, 국회의사당, mother's language 기념탑을 방문하는 하루를 보냈다.

상당히 방대한 크기의 국립박물관에는 방글라데시의 유적이 시간순서대로 총망라되어 트레이닝센터에서 ppt로 배웠던 방글라데시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 마지막 공간인 근현대 문물에는 멋진 그림과 조각들이 많았는데 폐관 시간이라 미처 다 보지 못해 아쉬웠다.

방글라데시가 낳은 유명한 건축가 '루이스 칸'이 지은 국회의사당 건물은 원, 삼각형,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인 디자인에 동서양의 융합된 미를 멋지게 뽐내고 있었다. 나랏일을 하는 건물과 푸른 잔디밭을 빙 둘러싼 철조망, 철조망 앞에 울망줄망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풍경이 교차하여 우리의 눈에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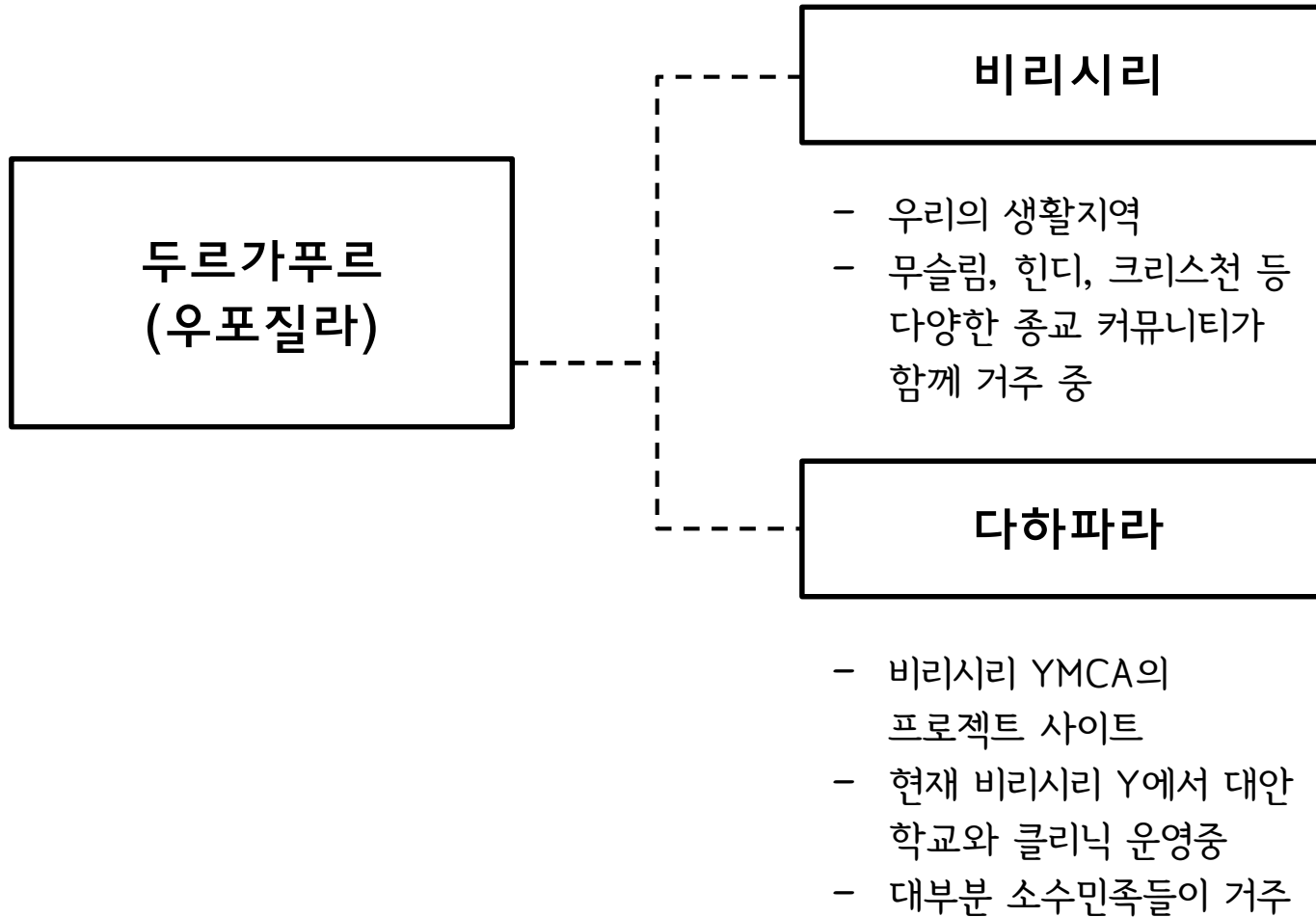
DHAKA

사바르 YMCA 트레이닝 센터

mother's language 기념탑을 마지막으로 다카의 일정은 모두 끝났는데, 당시 방글라데시를 지배하던 파키스탄의 상류계층 언어인 우르두어 사용을 강압당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통용되던 벵갈어 사용을 향해 흘렸던 피를 기념하는 곳이었다. 이는 독립을 향한 전초적인 불씨가 되었다고도 하는데, 모국어룰 가지는 것이 얼마나 뜻 깊은 일인지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한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 활동지역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다하파라 대안학교는 도쿄YMCA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 비리시리 YMCA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비정규 초등 대안학교이다. 현재 1명의 선생님이 있고 21명의 아이들은 이 곳에서 영어 수학을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정규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라운아피 방글라데시 팀은 지난 세 기수 동안 다하파라에 파견되어 교육활동을 펼쳐왔고, 방글라피 팀은 월, 화, 목요일 1시간씩 파견되어 5과목의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LGLADESH

	월	화	목
다하파라 대안학교	30분	영어 1 영어 애니 수학 1	영어 애니 영어 2 수학 1
	30분	영어 애니	영어 2 음악 1 수학 2
			음악 2 미술 / 체육 (매월 넷째주)

-영어 (김진경/분반)

-미술 (신지혜/합반)

-수학 (황하람/분반)

-음악 (오효정/분반)

-영어애니메이션 (오효정/분반)

다하파라

(2) 다하파라 클리닉

다하파라 클리닉은 캐나다 YMCA에 의해 설립되어 비리시리YMCA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현재 의사선생님 1명, 간호사선생님 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대안학교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의 건강 및 보건, 위생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클리닉은 다하파라 학교의 수업시간과 겹쳐있어 단원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했고, 질병예방에 대한 강연식 활동이 주를 이뤄 언어로 인한 소통의 문제가 크게 존재했다. 따라서 11기 클리닉 활동은 기본적인 질병예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언어 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마을의 소풍과 화장실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오전시간에는 모든 단원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이후 점심도시락을 먹은 뒤 오후에 다함께 활동을 진행하여 더욱 체계적인 클리닉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하파라

(2) 다하파라 클리닉

이곳에는 많은 양의 소 똥을 그냥 방치해두는 집들이 많고, 맨발이 더 익숙한 어린이들이 소 똥을 아무렇지도 않게 밟는 등 보건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소 똥이 방치되어 있는 집을 방문하여 구멍을 파고 그 속에 소 똥을 모아 넣도록 홍보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많은 집들이 구멍을 파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클리닉 주도로 구멍을 파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울타리가 없는 집에 방문하여 펜스를 설치하고 설치법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비리시리

(1) Youth클럽

Youth 클럽 개설 및 의견수렴

이 곳 youth들과 함께 youth클럽을 꾸려나가기로 했고, 따라서 활동의 이름도 프로그램이 아닌 클럽으로 정했다. 우리 팀이 기본적으로 생각한 클럽은 'movie club', 'music club', 'art club', 'cultural interaction day'의 4가지였고 세부적인 활동 계획은 youth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회의 시간을 통해 일련의 활동은 라온아피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클럽'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많은 youth들이 참여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스스로 정했다. 또한 회의 시간에 youth들은 (1) 각자의 전통놀이를 해보는 시간 마련 (2) 클리닝 프로그램 지속 (3) 기부 활동을 통한 모금으로 주변에 나무심기의 활동을 제안해주었다. 특히 클리닝 프로그램과 나무심기에 대한 제안은 상당히 놀라웠는데, youth들이 이전 기수들과 그 동안 함께한 환경관련 활동의 결과임을 느낄 수 있었다.



비리시리

Youth 클럽 포스터 및 홍보

youth 클럽이 만들어지고 Y캠퍼스 내부와 외부에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ymca를 오랜만에 방문한 youth들도 부담없이 클럽활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Y캠퍼스 안에 클럽 별 포스터를 만들어 붙이고, 외부 youth들이 참여할 수 있게 Y캠퍼스 밖에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비리시리

(2) 우리 삶의 터전 가꾸기 (가드닝, Asset 정리, 페인트칠, 클리닝)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내 집과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곧잘 없었다면, 이곳에서는 내 삶의 터전을 가꾸는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Youth들과 함께 Y캠퍼스의 낙엽을 쓸고 정원을 가꾸며 페인트칠을 하는 등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비리시리 Y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새로운 장부에 일일이 정리하고 코드번호를 부여하는 활동도 진행했다.



비리시리

(2) 우리 삶의 터전 가꾸기
(가드닝, Asset 정리, 페인트칠, 클리닝)



2014 MARCH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LGLADESH

비리시리

(3) youth들과 친해지기

우리의 여가시간은 youth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은 편인데, 사실 이곳 youth들은 우리보다 잘하는 것이 많다. 배드민턴도 매우 잘치고,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며 기타 치는 것을 즐긴다.

처음 이곳에 와서는 함께 배드민턴을 치면서 마음을 열었고, youth들에게 생전 처음 기타도 배우고 서로 좋아하는 노래를 가르쳐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끔 우리가 한국음식을 요리할 때면 같이 나눠먹기도 하고, 습상강에 함께 산책을 나가 아름다운 일몰을 구경하기도 했는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비리시리

(3) youth들과 친해지기



2014 MARCH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LGLADESH

비리시리

(4) 로컬 커뮤니티 활동

비리시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녹아있어서, 한국에서 막연히 생각했던 로컬 커뮤니티와 관련된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우린 아직도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외국인일 뿐 로컬 커뮤니티에 잘 녹아지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현지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반갑게 인사하는 등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면서 마을에 다가가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은 우리에게도 아는 얼굴들이 꽤 많이 생겼다. 산책하던 중 집에 불쑥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던 아주머니, 베이커리 아저씨, 단골 가게 아저씨, 가방을 샀던 바느질 집 아주머니, 리샤를 모는 아저씨, 자전거 수리공 아저씨 등 우리의 이웃들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

비리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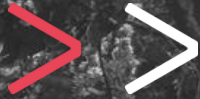
(4) 로컬 커뮤니티 활동

많은 이웃들이 생겨서인지,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활동과 캠페인들이 YMCA 캠퍼스 내부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외부에도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더욱 느끼게 된다. 외국인이라는 이 곳에서의 정체성 덕분에 현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나가는 비교적 쉬운 것 같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2014 MARCH

III. 방글라디 고민이야기



-활동고민
-생활고민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LGLADESH

방글라디 고민이야기

[활동고민]

- 1. Youth 활동
- 2. 다하파라 활동
- 3. 350ppm 캠페인
- 4. 공교육 파견활동
- 5. 네 번째 기수가 갖는 느낌

[생활고민]

- 1. 가로족 이야기
- 2. 쓰레기문제
- 3. 언어의 장벽
- 4. youth들과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까
- 5. 걸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6. 물
- 7. 우리의 적응력

활동고민

1. Youth 활동

비리시리 YMCA로 오는 Youth들은 대부분 남자 Youth들이고 매일 찾아오는 이들도 TV보기, 노래 부르기, 배드민턴 치기 이외의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실제로 Youth멤버들은 이미 YMCA이외에 다른 youth 커뮤니티에 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Y 주도의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Youth 프로그램들은 지속성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라온아띠 11기는 Youth들과 함께하는 Music, Art, Movie, Korea-Bangladesh Interaction Club 등의 클럽을 개설하였고, 4월 8일을 기점으로 체계를 갖춰 활동할 예정이다. Club운영에 있어 차후에 지속이 가능하도록, youth들이 주도하는 여러 장치도 고민 중이다.

또한, Youth 멤버들로 하여금 YMCA를 언제나 찾아오고 싶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벤트성이기는 하지만 추억 쌓기 프로그램을 종종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점이 모아져 기존 YMCA활동에 열심인 youth 멤버들과 함께 House Party Protocol, 갤러리 및 음악회, 운동회 및 Easter Sunday Program 등을 진행하여 Youth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돌릴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만들어갈 생각이다.

활동고민

2. 다하파라 활동

라온아띠 11기 방글라띠팀에게 다하파라는 활력소이고 희망이다. 정규 학교로 가지 못하는 형편의 아이들을 위해 YMCA에서 만든 NFPE (Non Formal Primary Education)에서 아이들을 만나 많은 것들을 함께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언어의 문제. 우리 팀의 언어가 아직 미숙한 점도 있지만, 5세 아이들도 수업을 듣고 있기에 수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구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영어수업의 경우, 선생님의 수업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똑같은 내용을 재차 수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나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또한 수학 수업의 경우 우리 팀도 숫자를 다 못 외웠고, 발음 또한 정확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숫자개념을 가르치는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상당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수학수업을 꼭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고민까지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고력 수학이나 교과서적인 차원을 넘는 영어 수업 등 우리 11기 팀만이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이 없을까? 하는 질문도 던지시 던져본다.

활동고민

3. 350ppm 캠페인 ①

이번 라온아띠 11기가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350ppm 캠페인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이산화탄소 수치 (350ppm)를 위해 국제적으로 펼치는 환경 캠페인이다. 우리 팀은 진주 국내훈련 때부터 이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 왔었고, 지속적이고 서로 연관성 있는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활동계획

① Youth 클럽

- movie 클럽 : 지구온난화를 다룬 영화를 상영하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art 클럽 : 350ppm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포스터를 만들어 전시한다.

② 다하파라 NFPE

- 미술시간 : 활동의 의의를 설명하고 빈 페트병을 활용해 화분을 만들고 식물을 심어본다.

활동고민

3. 350ppm 캠페인 ②

③ 클리닝 프로그램

- 한 달에 한 번 시장에 나가 youth들과 함께 쓰레기 줍기 활동을 전개한다.
- 시장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 활동을 확장하여 마을 내 이슈를 형성할 계획이다.

④ 350ppm의 날

- Y 캠퍼스 내부에서 바자회,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미술전시 등을 부스 별로 준비하여 350ppm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 350ppm과 환경문제에 대한 홍보물들을 제작하여 시장에 전시한다.

⑤ UCC 제작

활동고민

3. 350ppm 캠페인 ③

* 전개방향

방글라데시 도착 이후로 이 곳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350ppm의 전개 방향에 대한 단원들 간에 의견차이가 생겼다.

(1) 방글라데시는 지금 경제발전이 더뎌서 그저 350ppm을 지키는 것일 뿐이지, 만약 이대로 발전해 나간다면 350ppm은 거뜰히 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공장의 매연, 쓰레기 소각, 자동차 매연 등 지금도 많은 환경문제가 존재하는데, 자동차 수가 늘어나고 더 발전하게 되면 지구 온난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미 환경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로서 경고의 의미로 다가가는 것이 좋겠다.

(2) 방글라데시는 350ppm보다 낮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350ppm을 떳떳하게 외치기 힘들다. 차라리 이 나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기에 이에 대한 확실한 하나의 방향은 아직 찾지 못했다. 각자 더 경험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고, 이 캠페인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넓히는 과정이 꽤 의미 있었다. 또한 youth들과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다.

활동고민

4. 공교육 파견활동

350PPM 캠페인 활동의 방향성을 놓고 꾸준히 고민하고 토의하던 중에 비리시리 YMCA 총장님과 회의할 시간이 있었다. 회의 결과, 5월 중으로 공교육기관에 파견되어 350PPM 캠페인은 대체 무엇이며 전세계는 과연 왜 이 캠페인에 집중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문제로 인해 발생한 여러 피해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인들이 지켜나가고 있는 활동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물론 방글라데시는 350PPM에 못 미치는 배출량을 가진 나라이지만 다수의 대도시에서는 심각한 환경문제들이 존재한다. 350PPM은 계획 단계에서 팀원들 안에서 수 차례 의견충돌이 있었고, 배출량 상위권에 속하는 한국인이 여기서 소개를 하는 것 자체가 웃음을 살 수도 있지만, 교육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한 같은 지구인으로서 함께 지켜나가자는 합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 있지 않을까 싶다. 4월은 아직 계획 단계이긴 하나 지구시민교육, 환경교육에 더하여 진로교육과 같은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활동고민

5. 네번째 기수가 갖는 느낌①

우리 팀은 방글라데시에 라온아띠 네번째 기수로 파견되었다. 비리시리 Y는 이미 라온아띠가 상당히 익숙해서 Youth들도 우리가 어떤 활동에 할 것인지에 대해 이미 모두 잘 알고 있고,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있다. 이곳을 지나간 이전 기수들의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조그마한 변화들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기분이겠지만, 사실 처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펼쳐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에서 정형화되는 활동들이 있고, 이곳 사람들은 그런 활동들에 이미 익숙해져 이미 잘 알고 있는 듯 하다. 열심히 가드닝을 하고 흙 바구니를 현지 youth와 들고 가는 사진을 찍었는데, 그 날 저녁 이전 기수 보고서에 똑같은 구도의 사진이 담긴 것을 보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 또 페인트를 칠하는데 굳이 스스로 해도 될 것을 우리에게 권하며 사진을 직접 찍어주는 youth들의 모습을 볼 때면 우리가 문화체험을 하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활동 고민

5. 네번째 기수가 갖는 느낌②

결과적으로, 비리시리Y에서 제안하는 이미 정형화된 활동들을 정말 열심히 수행하되,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 youth들과 함께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정형화된 활동이나 우리가 시작하는 활동 모두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생활고민

1. 가로족 이야기

Youth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로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다. 방글라데시는 벙갈족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회이고, 가로족은 이곳에서 소수민족에 속하며, 사실 인도에도 많은 가로족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슬람이 다수인 사회에서 소수의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가로족은 다른 종교나 방글라데시 주류 사회를 이야기할 때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배타성은 youth들과 함께하는 일상에서도 자주 나타났는데, ‘무슬림들은 나쁜 천성을 가졌으니 가까이 하면 안 된다’, ‘youth club을 다른 종교 커뮤니티에는 홍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었다. 아무래도 소수의 종교를 가진 소수민족들이 자연스레 갖게 되는 자세가 아닐까 싶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youth들 대다수가 가로족인 만큼, 대화할 때나 활동을 할 때 이러한 감정들을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다. (다만 youth club은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만큼 타 커뮤니티에도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한다.)

생활고민

2. 쓰레기문제 ①

방글라데시에는 현재 국가적으로 쓰레기 처리시스템이 없는 상태이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주로 집집마다 알아서 소각하는 형식인데, 길거리나 시장에는 소각하는 사람이 없어 쓰레기가 심한 악취를 풍기며 방치되어 있다. 대도시일수록 훨씬 심각한데, 우리가 머물던 사바르 Y트레이닝센터 바로 앞에는 웬만한 학교 운동장을 덮을 양의 쓰레기가 쌓여 상당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그 쓰레기더미를 아무렇지 않게 밟으며 쓸 만한 물건을 찾는 사람들, 먹이를 찾는 동물들의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고, 진심으로 보건 및 환경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바르에서 우리를 인솔해주었던 Alex는 의견을 묻는 우리의 물음에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딜레마의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쓰레기를 중앙정부에서 처리할 시스템이 없이는 사실상 쓰레기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다가, 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할 공터는 부자들이 높은 건물을 짓기에 바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생활고민

2. 쓰레기문제 ②

비리시리의 경우 사바르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시장 골목골목에 방치되어있는 쓰레기가 물오염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가정쓰레기는 집에서 소각한다고 해도,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없어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길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것이 쌓여 쓰레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쓰레기를 무조건 길에 버리는 것은 방글라데시 내에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 한 편,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 도저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 어느새 우리도 종종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일이 생겼고, 이에 새삼 놀라고 창피할 때가 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뭔가 우리가 이슈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을지 고민하다가, 시장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안이 나왔다. 지속성의 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비리시리 ymca 총장님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귀국한 후에도 youth들과 함께 쓰레기통을 지속적으로 비울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 설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데 있다. 그러나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완전한 지원을 약속하지 않으셔서 비용문제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활고민

2014 MARCH

2. 쓰레기문제 ③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LGLADESH

생활고민

3. 언어의 장벽

현지어가 아직 많이 미숙한 우리 팀원들과 다하파라의 아이들, Birishiri YMCA Youth들과의 언어장벽은 활동기간 중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큰 숙제이다. Youth들과 우리의 영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 소통에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적지 않았고 서로의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못한 적이 종종 있었다. 또한 Dahapara 대안학교 아이들도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조금 더 확실하고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현실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현지 코디네이터의 통역을 거치면서 1차적으로 본래의 내용이 자체 필터링되거나 코디의 주관적인 의견이 덧붙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거나 본래의 뜻이 다소 왜곡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언어문제는 활동기간 내내 직면할 문제이므로 더욱 많은 공부와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활고민

4. youth들과 정말 친구가 될수있을까 ①

한국에서부터 우리 팀은 현지에 도착했을 때 youth들과 접촉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왔었고, 이에 대해 그들과 어떤 방식으로 어울릴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youth들을 만날 때면 쉽게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웃기지도 않은데 웃어야 할 것 같고, 슬슬 지루해지는데 말을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 무엇보다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다. 말이 안 통하다보니, ‘밥먹었니?’ ‘피곤하니?’ ‘어디가니?’ ‘집에 가니?’ 등의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대화가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 다가서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친구’라는 경계를 조금 높게 생각하고 있던 팀원들은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곤 했다. (이러한 고민 없이 정말 친밀하게 관계를 쌓아가는 팀원들도 물론 있었다.)

생활고민

4. youth들과 정말 친구가 될수있을까 ②

그러던 어느 날, 자주 만나던 한 youth가 보이지 않아 그가 어디 갔냐고 물었을 때, 다른 친구로부터 그가 다카에 간지 며칠이나 지났다는 대답을 들으며 우리가 너무 언어를 핑계삼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의 관심사, 일상은 어렵지 않게 물을 수 있는데도 대화의 폭을 우리 스스로 좁히고 있지는 않았는지 고민해보게 되었다. 앞으로 youth 클럽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우리 팀만의 스타일로 '서서히'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강력하게 믿는다.

생활고민

5. 걸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3월 말쯤, 우리 팀이 Durgapur Bajar(시장)를 들렀을 때 한 남성이 갑자기 자전거 앞길을 가로막고 핸들을 잡고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순식간에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건이 있었다. 물론 봉사자의 마음으로 왔고 구걸한 돈 또한 큰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줄 수도 있었으나 자선사업가들 또한 자선사업을 할 때에는 빠져나갈 퇴로를 확보하고 활동하듯이 이번 일도 언제든지 입소문을 통해 삽시간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많이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굳것질하기 위해서 쓰던 돈에 비하면 정말 적은 돈이었고, 인색하게 굴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모순적이고 인정 없어 보일 정도였다.

걸인을 대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들은 여러 갈등과 고민에 빠져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직 정확하고 명쾌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아주 적은 돈을 그 걸인에게 주고 마무리되었지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10다카만 주면 된다.”, “조금만이라도 주는 것이 좋다.” 등의 말을 하여 당시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이 자리를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던 우리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생활고민

6. 물

비리시리에 도착한지 얼마 안되어 youth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현지 물에 적응한 단원도 있었지만, 배탈 등으로 인해 미네랄 워터를 마셔야 하는 단원들도 있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를 배려해주셔서 자연스럽게 미네랄 워터를 사다주셨지만, 괜히 미네랄 워터를 마시는 우리를 쳐다보는 것같이 느껴졌고(물론 아니었을 수도 있다.), 물 문제로 싸운 적이 있었다는 선배기수의 말도 떠올라 조심스레 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우리가 현지 물이 나쁘다고 생각하여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물이 달라 배앓이를 할 수 있어서 미네랄 워터를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보니 라온아띠들이 현지 물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안 먹는 것이라고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youth들이 있었던 것 같았다. 현지 물이 나빠서 안 먹는 것 아니라 몸에 안 맞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중에 잘 맞는 단원들은 현지 물을 아주 맛있게 잘 먹는다고 설명했다. 혹시나 감정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물과 같은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이 이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 함께 이야기하며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꼭 필요했던 것 같다.

생활고민

7. 우리의 적응력 ①

사실 맨 처음 사바르에서 손으로 밥을 먹을 때, 노랑고 누런 카레 색 때문인지 때로는 괜히 비위가 상해 힘들기도 했다. 또한 처음 바퀴벌레를 보았을 때에는 그 엄청난 크기에 여자단원들이 건물 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곤 했고 바퀴벌레가 무서워 밤에 불을 켜고 잠에 들곤했다. 한국에서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여유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괜스레 불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다. 다하파라로 처음 자전거를 타던 날에는 각양각색의 클락션 소리를 듣고 놀라 넘어지기 일쑤였고, 시장구간~벽돌구간~모래구간~산길구간을 지나는 철인 4종 경기를 하는 것이 참으로 절망적이었다. (심지어 시울리 단원은 당시 주저앉아 울었다고 한다.)

생활고민

7. 우리의 적응력 ②

이랬던 우리가 한 달이 지난 지금, 이제는 손가락보다 손이 편해져 한국에 돌아가서 짜장면을 손으로 먹는 상상을 하곤 한다. 바퀴벌레는 여전히 징그럽지만 그래도 의연해졌고, 매 끼니마다 등장하던 카레가 없는 식탁은 왠지 모를 섭섭함이 느껴진다. 정전이 되면 촛불을 켜고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조금씩 깨닫고 있고, 손빨래 실력도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다. 마냥 멀게 느껴지던 다하파라로 향하는 울퉁불퉁한 길들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 클락션 소리에 의연해지고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소리를 치며 비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각자의 방식으로 느리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제 고작 한 달이지만, 막막했던 환경에 각자의 방식으로 빠르게 적응해가는 우리가 참 놀랍다. 남은 시간 동안 또 조금씩 변화해갈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격려하고 싶다!

암므라 빠르보!

2014 MARCH

IV. 단원소감



Ajoy
Shojol
Dipa
Shiuli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LGADESH



Ajoy

Nomoshkal!

5개월의 시작, 방글라데시로 날아와서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갔다. 기억을 되짚어가며 하나 둘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시간이 참 빠르다. 처음 1주일간의 Dhaka City는 도시의 느낌이 많이 들었고 여느 도시와 다를 것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심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수도의 느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이었고, Savar도 아쉬울 것 없는 도심이었다. 우리 팀원들은 모두가 Christian이라서, Savar 지역교회 Youth들과도 순식간에 친해지고, 서로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반가웠다. 한국에서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한 편의 꿈처럼 빨랐다는 것을 여기에 와서야 깨달았다. 한국에서 지내온 인생과 여기서 앞으로 살아갈 삶에 변속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느릿느릿한 세상인 시골로 간다.



Ajoy

1주일간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8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차를 타고 Birisiri로 입성, 오는 길이 너무 길어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지루함을 넘어선 괴로움을 맛봤고, 도착한 Birisiri는 그 긴 시간을 참고 견딘 보상을 하는 듯, 평화롭고 신선한 자연의 도시였다. 도착한 Youth들 중에서 군대 동기를 닮은 Youth, 중학교 동창을 닮은 Youth등 한국인과 너무 닮은 외모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도착한 당일 저녁에 우리를 맞이해 주기 위해서 동네 Youth 청년/청소년들이 모였고, 저마다의 끼를 발산하여 주었지만, 우리는 정말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소소함을 보여준 것 같은 느낌에 조금 후회는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은 기대치만 올려주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첫날을 끝내었다. 도착하고 당분간은 쉬와 공부를 꾸준히 번갈아가며 하고, 앞으로 살아갈 4개월간의 대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Dhahapara Project Area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루하루를 뿌듯하게 지내고 있어서 행복하다. 모든 단원들이 음식이나 물 같은 것에 크게 거부감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 4명 사이의 관계도 좋아서 앞으로의 시간들도 행복하고 따스한 나날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Abar Dekha Ho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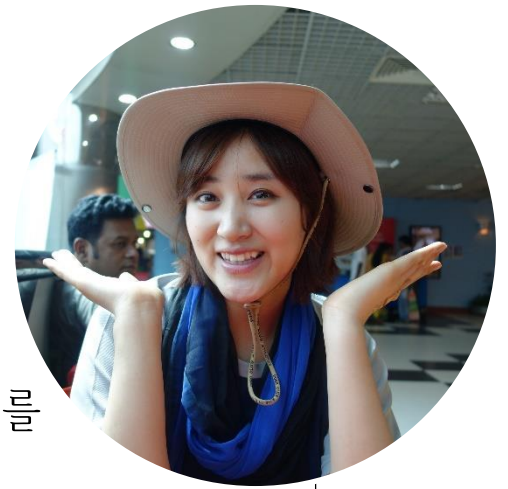
Shojol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이곳 방글라데시에서의 일상은 과연 한국에서의 바쁘고 정신 없던 일상들과는 정반대의 여유롭고 한가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정답이 없는 문제이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번 한 달은 전적으로 방글라데시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삼았다. 방글라데시라는 새롭고 낯선 환경에 내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특별하고 의도적인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내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의 흐름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다양한 고민과 내적갈등을 경험했고, 이러한 것들은 매일 팀원들과의 나눔 시간을 통해 한 가지 결론에 종착했다. 한국에서의 내 삶이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고 좋은 일만 존재하지 않듯이 이곳 방글라데시에서의 삶도 한국에서의 삶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는 것. 방글라데시라는 먼 곳까지 온 것이 여행도 비즈니스를 위함도 아니기에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소한 감정을 나누고 평범한 일상을 나누자는 것. 물론 말이 쉽지만 이것만 잘해도 5개월 뒤 후회 없는 방글라데시의 삶이었다고 자평하지 않을까 싶다. 아차차!

Ambivalence

Dipa



이 곳에 와서 하루하루 날짜를 새지 않게 된 순간,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첫 보고서를 쓰는 날이 되었다. 나는 다른 팀원들과 달리 언어구사력이 뛰어나지 않아,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나의 문장력에 잘 담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최선을 다해 표현해 보도록 하겠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호기심 천국이다. 한번도 농촌에서 자라본 적이 없는 나에게겐 비리시리의 모든 것이 생소하다. 마음에 평화를 찾은 요즘에는 비리시리 생태를 시간가는 줄 모르고 관찰한다. 그러다 보면 동네 이웃분들, 꼬마들이랑 말도 섞게 되고 동식물에 관해 물어보며 바디랭귀지를 나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즐겁다. 나도 이 곳에 와서 내가 이렇게 자연생태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새끼 염소 세 마리(깜이, 점이, 이름없음), 2개월된 송아지(밤비), 태어난 지 9일 된 흰염소, 엇그저께 태어난 다하파라의 새끼 돼지 여섯 마리, '미꾸다'가 운영하는 닭가게의 닭무리들, 연못을 헤엄치는 오리들 등등 이곳에서는 흔한 풍경이지만 나는 이 모든 풍경들이 특별하게 다가온다. 이곳에서 난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다. 또한 내적으로도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훨씬 어린아이 같았고 미숙했다. 나의 한계 역시 많이 느꼈다. 내가 몰랐던 나의 단점들이 보이기도 했다. 처음엔 사실 이러한 복잡한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이러한 근심걱정으로 인해 이 곳의 생활을 온전히 못 즐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책을 많이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생각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왜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인가..? 아직 잘 모르겠다. 단순히 내가 외면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곧 또 다른 고민과 부딪칠 날도 올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싶다.

Dipa

이 곳에서 무엇보다 가장 든든한 건 사람들에게서 따뜻함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 나의 낮잠이 많이 두꺼워진 것도 사실이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거는 것이 너무 재밌다. 심지어 자전거를 타다가 처음보는 사람이 따뜻한 눈길로 “how are you”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고 페달을 더 활기차게 밟게 된다. 기분이 좋다. 그러다가 넘어질 뻔 한 적도 종종 있지만, 이 또한 나에게 큰 행복이다.

그냥 모든 것이 참 고맙다. 한달 간의 생활을 정리하면 ‘고맙다’는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다. 우리 팀원 진경오빠, 하람오빠, 효정이를 만나게 된 것도 참 고맙고, 지금 내가 속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하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이곳에 와 있다는 게 꿈같은 때도 종종 있다. 한 달동안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길거리에서 종종 낯선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비리시리가 종종 머나먼 타지로 느껴지는 이러한 느낌은 오히려 이 모든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게끔 각성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다. 비로소 이러한 낯선 느낌이 전혀 안 들게 될 때쯤엔 귀국 날이 코앞으로 와 있을까봐 걱정이다.

Shiuli



벌써 한 달이다. 한국에 너무 가고 싶어 매일 세던 D-day도 이제 어느새 110일대로 접어들었다. 원래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고 일을 저지르고 보는 성격이라, 별 생각 없이 비행기를 탔고, 도착해서야 실감나는 어려움들이 내 눈앞으로 다가왔다. 종강하고 호기심에 후다닥 작성해본 지원서, 그저 재밌기만 했던 면접, 그리고 합격, 그리고 출국,... 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뤄졌더랬다. 어느 샌가 나는 모기와 싸우며 방글라데시 침대에 누워있었고, 앞으로 5개월이 남았다는 게 가히 믿어지지 않았다. 낮에 활동을 하면서는 보람차고 뿌듯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밤에 자기 전엔 시간이 원망스러운 교차된 감정을 매일매일 느끼며 한 달을 보냈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니 내가 또 한 단계 자라있음이 느껴지기에, 남은 시간들은 부디 아름다운 고국을 향한 마음을 접고 이곳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HELLO

Shiuli

아름다운 이곳의 풍경과 시간들이 생각에 잠기게끔 날 사로잡곤 했다.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들, 통학 길 어린이들이 건네는 수줍은 인사, 한국에선 미처 듣지 못했던 예쁜 가사,. 아름다운 모습들을 눈에 빠짐없이 담고자 노력하며 조용히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렇게 침잠한 나와 외로이 독대할 때면, 나에게 대한 연민과 격려가 복잡하게 쏟아졌다. 그 동안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이었나, 그동안 얼마나 내 표현들이 서툴렀나, 내 사람들을 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나,, 메마른 줄만 알았던 나의 감상과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나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이번 한 달은 이렇게 보냈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하는 내 모습들이 참 모난 구석들이 많아 혹시 팀원들에게 마음의 불편을 줄까 조심스럽다. 또, 다시 주어지는 과업과 일상에 내가 다시 메말라버려 주변 이들에게 세심하지 못한 행동들을 해버리지는 않을까 참 걱정스럽다. 이제 남은 시간동안은 이런 나를 쉴 새 없이 다듬고 두드려야겠다. 더 둥글어진 모습으로 주어진 일과 내가 맺은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싶다.



2014 MARCH

+ Photo

Time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LGLADESH





+ 국회의사당 앞에서



+ 주요 이동수단 '폭폭'



+ 다카 쇼핑몰 (여자단원들의 마지막 화장)

2014 MARCH



+사바르 트레이닝센터



+ with John



+ 나는야 막내 시울리~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LGLADESH



+ youth들과 가로문화센터



+ 우와!



+ 코디 루벨과 숙소 앞에서



+ 애니메이션 수업! 누가 학생인지 모르겠죠?



+ 미술 수업! 누가 학생인지 모르겠죠? 2



2014 MARCH



+ 멋진(?) 쇼콜
& 예쁜 아이들



+ 바지가 예쁘죠?.....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LGLADESH

2014 MARCH



+ 내가 라즈뿌프로(=왕자)다 !!



+ 습상강 일몰!(아련아련)



+ 내가 김진경이다 !!!!!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LGLADESH



+ 신지혜! 신지혜! 신지혜!



+ 삼총사!



+ 신지혜! 어휴...



+ youth들과 힌두커뮤니티 방문



+ 평화친구가 떴다!



+ 국민체조 시작~ 엑 두이 띵 짜르!



2014 MARCH

Thank You

Ajoy
Shojol
Dipa
Shiuli

RAONATTI 11th Batch

DIRISIRI YOUTH CENTER, BANGLADESH